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MBTI 성격유형과 부모와의 관계

## Personality Types Measured by MBTI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mong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Juveniles

한국 MBTI연구소

연구원 김수연\*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명권

Korea institute for the MBTI

Researcher : Kim, Soo-Yun

Dept. of educational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Professor : Kim, Myoung-Kwon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mong the juvenile delinquents non-delinquent adolescents. From the analyses of empirical data, the following tendencies were found. First, delinquent juveniles are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to be such MBTI types as "Extroverted," "Sensing," "Thinking," and "Judging" than non-delinquent juveniles. Second,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 juvenile delinquent group was found to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than the non-delinquent juvenile group. Third, for both the non-delinquent juveniles and the delinquent juveniles, "E" and "P" preferences were related with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Fourth, "EJ," as a psychological temperament type, was related with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arents for both groups. Fifth, the psychological function typ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Sixth, "EP" and "IP," as psychological attitudes types, were related significantly with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arents. Seventh, the juveniles classified as "ESTJ" had good relationships with parents, whereas "ISTP" types, on the other hand, tended to show the most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The most interesting result of this study was the finding that the "P (perceiving)" types in the non-delinquent juveniles group as well as in the juvenile delinquents group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ir parents.

---

▲ 주요어(Key Words) : MBTI, 성격유형(personality type), 비행 청소년(juvenile delinquent), 부모-자녀관계(parents relationship)

### I.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초등학교까지 퍼져 가고 있는 학교폭력,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등은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예가 된다. 종래 보기 어려웠던 학원폭력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성비행 관련 사건들은 청소년비행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반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청소년기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이 개발되어야 하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발달단계이다.

비행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에 대한 다

---

\* 주저자 : 김수연(E-mail : ksy2760@hanmail.net)

양한 기초연구들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에 관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성격변인에 관한 연구들이나 혹은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성격이나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미국의 비행청소년 연구를 보면(심응철, 1996), 성격과 기질에 관한 비행청소년의 심리학적 연구가 가장 많다. 국내에서 Eysenck의 이론(이인혜, 1991), 16PF(Personality Factor, Cattell, Eber & Tatsuika, 1970)를 표준화한 성격요인 검사(염태호·김정규, 1991),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 이하 MMPI로 칭함) 및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 이하 MBTI로 칭함, 김정택·심혜숙, 1991)에 입각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성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성격 연구는 주로 범죄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정신병리나 이상심리를 기초로 MMPI와 같은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심리검사 도구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을 교정하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반면 MBTI는 비행자들의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에 탁월한 실질적인 응용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MBTI에 관련된 비행청소년 국내연구는 부적응 학생(최여원, 1994)이나 잠재적 비행가능 청소년(고숙경, 1994) 그리고 감별소 비행청소년(김숙영, 1994)의 비행경향이 연구된 바가 있을 정도이다. MBTI와 비행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비행청소년의 성격분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MBTI를 비행청소년 상담에 적용한 연구(Cima, 1988)가 주목적이었다. 선행연구마다 연구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인 결과는 판단형보다 인식형들이 많았다는 것이었다(최여원, 1994 ; 고숙경, 1994; 김숙영, 1994 ; 심혜숙과 김명권, 1998; Golay, 1982; Keirse & Bates, 1978; Myers & McCaulley, 1985; Uslianer, 1990).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한계점이 발견되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 비행을 일으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청소년이나 문제가 없는 청소년들과의 비교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치 선부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 인식형이 비행과 관련이 깊다라는 결론을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인식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고, 인식형 선호도(점수)도 더 높을 것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경우이다. 나아가 일반청소년에게도 인식형의 사람들은 '나쁜' 성질이 많고 인식형의 특징들은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가족환경 특히 부모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안창규, 1992; 김선남, 1994; 박성수, 1991; 이태원, 1991; 김준호, 1990).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비행을 무의식적인 근친상간적 소망과 이에 대한 처벌을 받으려는 강박적인 욕구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부모관계에서 좌절

은 공격성 발달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는 욕구충족에 대한 충동적 행동을 조장함으로써 비행을 유발시킨다(Alexander & Healy, 1935).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비행을 분열된 자기와 타인의 표상과 양육과정에서 반복된 좌절에 의한 충동성과 과도한 공격성 그리고 공감능력의 미발달로 인한 성격적 병리로 보고 있다. 즉 자아발달이 장애를 받아 좌절을 견디거나 욕구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관심을 얻으려는 대리적 수단으로 혹은 부모가 자식의 비행을 은근히 조장함으로써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대리 만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Binder, 1987). 반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모방 학습하는 것이 비행을 이끈다고 보았다(Bandura, 1973). 부모가 훈육이나 다른 문제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폭력 행동이나 다른 범법 행동을 빈번하게 한다면 자녀가 이를 관찰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고 그 결과 자녀들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행 친구와의 애착행동이 강해져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Nye, 1958). 이들 이론들은 강조하는 측면은 각기 다르나 하나 같이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양육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안정되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비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MBTI 성격유형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감지하고 이해하는가 즉 관계를 맺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간의 다양한 행동의 차이점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관점을 부모-자녀관계에 적용해보면 성격 유형에 따라 가족간의 역동이 달라질 것이고,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 또한 다를 것이다. 그 결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의 건강함과 원만함이 비행을 포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성격 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그런 차이가 일반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경우 양상이 같은지 혹은 달리 나타나는지가 궁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에 있어 성격 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호지표의 다양한 조합 즉 기질, 기능, 태도 및 16가지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비행에 관련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의미있다고 본다.

위 연구목적에 따라 구성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MBTI 성격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 있어 선호지표(E-I, S-N, T-F, J-P)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 있어 기질(SJ, SP,

NF, NT)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 있어 기능(ST, SF, NF, NT)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 있어 태도(IJ, IP, EJ, EP)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 있어 16개 성격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는 MBTI성격 유형에 대한 소개 그리고 MBTI 성격유형과 부모자녀와의 관계 및 MBTI 성격 유형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고찰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MBTI 성격유형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터라 이론적 고찰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MBTI 성격유형과 성격과 비행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 1. MBTI 성격 유형

Jung(1921)의 심리유형론은 매우 고전적인 성격이론이면서 동시에 현대의 성격이론들과도 일치하는 바가 커서 대표적인 성격이론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Myers, McCaulley, 1985). Jung(1921)의 심리유형론에 입각해서 개발된 MBTI는 그 뛰어난 유용성으로 인해 인간을 다루는 여러 영역들에서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심리검사이다.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장점과 긍정적인 잠재력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또한 MBTI에는 수십 년에 걸쳐 수집된 많은 경험적인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어 성격이론, 교육, 상담 및 임상, 직업 및 진로, 인간관계 등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이것은 MBTI에 나타나는 성격의 주요핵심인 4가지 요인 즉 에너지의 방향(외향-내향), 인식기능(감각-직관), 판단기능(사고-감정) 및 생활양식(판단-인식)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Jung의 심리유형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다양한 이유는 개인이 인식하고(perceiving) 판단하는(judging)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Jung에 의하면 이 선호성은 양극성을 띄고 있으며 외부환경에 대한 에너지의 방향인 태도(attitude)와 인식과 판단이라는 심리기능(psychological function)으로 크게 대별된다. 즉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에” 주의를 하느냐와 주의의 초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방향성을 Jung(1921)은 선천적 경향(inborn tendency)으로 보았다. 또한 이 경향성을 양극의 방향으로 보았고, 이 양극성의 방향을 각각 반대 지표로 선정하였다. 각 지표의 역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향성-내향성(EI, Extraversion-Introversion): EI 지표는 Jung이 말한 의미대로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Jung은 외향성과 내향성이 상호보완적인 태도로서, 개인과 사회가 생활해 나갈 때 관심의 방향이 외부세계인가 내부세계인가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외부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 바깥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띤다. 반면에 내향성의 사람은 주로 자기 내부세계로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감각-직관(SN, Sensing-Intuition): SN 지표는 심리기능 가운데 인식에 관한 기능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주로 감각(S)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관을 통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직관(N)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나 관계 또는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한다.

사고-감정(TF, Thinking-Feeling): TF 지표는 심리기능 가운데 판단기능으로서, 판단을 할 때 양극단의 두 경향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주로 사고(T)를 통한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주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감정(F)에 따라 결정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판단-인식(JP, Judgement-Perception): JP 지표는 외부세계에 대처해나갈 때, 즉 우리 삶에 있어서의 외향적인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판단과정(사고나 감정)을 주로 사용한다.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인식과정(감각과 직관)을 주로 사용한다.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 중 두 가지가 합쳐져 마음의 기능, 기질 그리고 태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선호지표의 조합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진다면 16가지 성격유형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해진다. 먼저 기능은 심리적 기능에 관련된 두 지표인 감각-직관 지표와 사고-감정 지표를 조합시킨 것이다. 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할 때 가지는 일관된 심리적 경향성으로 내재된 경향성이다. Myers는 조합 중에 기능이 가장 중요한 조합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진로지도에서 유용하다고 하였다. 기능은 ST, SF, NT, NF로 나뉘어 지는데,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유형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냉정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SF는 인간중심적이고 동정적이며 우호적인 유형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따뜻한 온정을 펼 수 있는 분야에서 만족을 누린다. NT는 아이디어가 많고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유형이다. 이들은 논리적이고 영리하여 자신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의 문제해결

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NF는 신념과 의사소통이 뛰어난 열정적이고 통찰적인 유형이다. 이들은 말이나 문자에 특별한 재능이 가지고 있으며 온정과 헌신으로 가능성을 추구한다.

기질은 개인의 여러 가지적인 행동 속에 내재하는 패턴의 일관성으로 개인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지문과 같은 것이다. 기질은 SJ, SP, NF, NT로 나뉘는데, SJ 기질은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행동파적인 사고유형으로 '보호자'와 같은 행동 특성을 가진다. SP는 순발력과 순응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고 손재주가 뛰어난 현실적응형으로 '장인'의 행동특성을 보인다. NF는 진실과 공감에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에 관심을 갖는 '이상가'의 행동특성을 갖는다. NT는 자신감을 실현하고 지적인 이해와 원리과학을 추구하며 매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합리론자'의 특징을 갖는다(Myers, McCaulley, 1985; 한국 MBTI연구소, 2000).

태도는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내향의 지표와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판단-인식 지표 두 가지를 조합한 것이다. 이 둘 지표의 조합은 주로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어 '태도'라고 이름 붙여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IP, IJ, EP, EJ로 나뉘는데, IP는 설득력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소한 것에 적응을 잘하는 반면 중요한 일에는 확고부동한 적응력이 강한 내향형이다. IJ는 고집과 인내심이 강하며 자기 복안이 따로 있는 의사결정이 강한 내향형이다. EJ는 신속하고 결단지향적이며 마감이 빠르다. 또한 확신에 차있고 민첩한 의사결정이 강한 외향형이다. EP는 규정과 규율에 매이기 싫어하며 활동적이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는 적응력이 강한 외향형이다.

## 2. 청소년 비행과 MBTI 성격유형

MBTI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약물중독 및 여러 정신장애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비행성향이나 비행청소년 및 품행장애 등을 MBTI에 의해 측정하는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다(심혜숙과 김명권, 1996; 1997; 이재갑, 1993; 고숙경, 1994; 김숙영, 1994; 최여원, 1994; 권복순, 1996; Lippen, 1990; Dawes, 1991; Kelly, 1991; Usilianer, 1990; Hawkins, 1989; Cima, 1988). 이러한 연구들은 비행이나 정신장애 및 부적응과 성격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관심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비행자나 정신장애자들에게 MBTI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행되어져 왔다.

외국의 경우 품행장애와 정서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연구(Kelly, 1991)에서 품행장애자들은 일반집단에 비해 내향형, 직관형, 사고형이 많았다. 학교 부적응과 성격유형간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SP 학생들이 보다 더 부적응을 겪었다. SP들은 자발적이고 충동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규칙의 지배를 덜 받고, 공립학교에선 특히 수업장면과 교실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일탈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Keirse &

Bates, 1978). Tobacyk, Wells 및 Springer(1988)는 학교탈락의 위험도가 높은 중학생의 성격유형과 자아개념 관계에서도 내향형, 사고형, 인식형이 자아개념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청소년비행과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감별소 비행청소년 215명의 성격유형은 외향형과 감각형이 많았다(김숙영, 1994). 실업계 여고생의 잠재적 비행경향과 MBTI 성격유형의 관계에서는 외향형과 인식형이 관계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식형이 잠재적 비행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형들은 활동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자신을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세계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므로 이들은 현재의 대학입시 위주의 학업에 더욱 적응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숙경, 1994). 정학을 당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지표에서는 외향형, 감각형, 인식형이 많았고, 기질에서는 SP가, 성격유형에서는 ESTP와 ESFP가 많았다. 이것은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최여원, 1994).

심혜숙과 김명권(1996, 1997)의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인식형은 판단형에 비해서 비행의 정도 뿐 아니라 일반생활이나 정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뚜렷하게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어 비행청소년들의 인식형은 판단형과는 매우 다른 성질의 집단으로 밝혀졌다. 비행청소년의 성격의 분포는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 ST, SP, ESTP, ESTJ, ISTP이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성격 별 행동특성의 관계를 볼 때 내향형은 정서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인식형은 거의 모든 생활영역들에서 판단형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비행청소년들은 특히 인식형의 부정적인 속성을 보완하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감각형과 직관형간에는 행동 특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성격유형에서는 ISTP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정서적인 곤란을 더 많이 겪었고, ESTP가 더 충동적이고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비행청소년이나 비행성향이 있는 자들은 대체로 외향성, 감각형 그리고 인식형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으나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연구대상에서 범법사실이 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보여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으로 다음과 같이 표집하였다. 먼저 비행청소년은 보호관찰대상으로 보호처분 2호 후

은 3호를 받고, 전국 9개 주요도시의(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수원, 광주, 창원)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남자 소년범 572명이다. 일반청소년은 서울, 부산, 진주, 왜관, 사천에 있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617명이었다.

연구대상자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그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남녀의 성별에서는 여자 비행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비행청소년 모두 남학생에 국한시켰다. 이들의 연령은 14에서 19세에 분포되어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6.4세, 일반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6.7세이다. 학력에서 비행청소년의 경우 고재(14.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퇴(11.7%), 중재(9.9%) 순이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두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종교를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66%가 일반청소년의 경우 57%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재는 척도는 김명권(1999)이 제작한 행동특성 요인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 척도와 어머니와의 관계 척도에서 빌어왔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총 6문항으로 아버지와의 거리감, 친밀감, 의사소통 등을 측정한 것이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총 6문항으로 역시 어머니와의 거리감, 친밀감, 의사소통 등을 묻는 문항이다. 모두 5점 Likert식 응답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alpha$  계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75, 어머니와의 관계가 .83이다.

2) MBTI

MBTI는 Jung의 심리유형 이론을 근거로 Briggs와 Myers가 1941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성격유형지표(type preference)이다. 9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지표 중 각 개인이 선호하는 네 가지 지표로 표시된다. MBTI 한국어판은 김정택과 심혜숙(1990)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MBTI 성격유형과 부모관계의 전반적인 경향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MBTI 성격유형과 부모관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선호지표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선호지표를 연속점수로 환산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중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은 네 선호지표 축들의 연속점수이다. 연속

점수의 값이 커질수록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및 인식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비행·일반청소년간의 선호지표별 차이검증

변인	비행청소년			일반청소년			t
	N	M	SD	N	M	SD	
외향·내향	572	95.8	19.5	617	103.8	25.5	-6.1**
감각·직관	572	82.1	16.2	617	87.1	20.4	-4.7**
사고·감정	572	91.5	38.5	617	96.1	17.4	-2.7*
판단·인식	570	110.5	22.1	617	115.4	26.2	-3.5**

\* $p < .01$  \*\* $p < .001$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외향-내향형 지표에서는 외향형, 감각-직관형 지표에서는 감각형이, 사고-감정형 지표에서는 사고형이, 판단-인식형 지표에서는 판단형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백분율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선호지표별 차이검증에서도 일반청소년의 인식형 점수가 의미있게 높은 점은 특이한 사항이다. 예상되는 바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인식형이 더 많을 것 같았으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는데, 김정택과 심혜숙(1995)의 연구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이다. '비행청소년에서 인식형이 많고, 인식형 선호도도 더 높다'는 인식형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은 버려야 하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선호지표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표 2>은 네 가지 지표에 따라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차이있는가라는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외향-내향형에 따라 비행·일반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에 따라 부모관계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 모두 외향형은 내향형에 비해 더욱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외향형 청소년이 내향형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더 적응적이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외향형은 부모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도 잘하고, 진로선택에서도 더욱 확신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Disorus, Carney & Bryan, 1995).

둘째, 감각형과 직관형에 따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감각형과 직관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감각형의 청소년과 직관형의 청소년 모두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정도는 유사하였다.

<표 2> 비행·일반청소년 선호지표별 차이검증

	비행청소년					일반청소년				
	외향형		내향형		t	외향형		내향형		t
	N	M	N	M		N	M	N	M	
아버지	325	3.2	325	3.0	3.7***	276	3.0	322	2.8	3.0**
어머니	321	3.6	321	3.4	2**	279	3.9	319	3.7	2.2'
	감각형		직관형		t	감각형		직관형		t
아버지	475	3.1	73	3.2		0.6	430	2.9	168	
어머니	476	3.5	75	3.6	0.8	430	3.8	168	3.8	-0.2
	감정형		사고형		t	감정형		사고형		t
아버지	128	3.2	420	3.1		1.7	260	2.9	338	
어머니	123	3.5	423	3.5	-0.1	260	3.8	338	3.8	0.5
	판단형		인식형		t	판단형		인식형		t
아버지	182	3.3	366	3.0		4.9***	169	3.1	429	
어머니	179	3.8	367	3.4	5.7***	167	4.0	431	3.7	4.1***

\*p<.05 \*\*p<.01 \*\*\*p<.001

셋째, 사고형과 감정형에 따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았다. 사고-감정형 선호지표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흔히 사고형과 감정형을 비교할 때 감정형이 사고형에 비해 더 '인간적'이고 관계지향적이어서(Keirse & Bates, 1978; Myers & McCauley, 1985) 부모와의 관계도 긍정적인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비행청소년은 물론 일반청소년 역시 감정형과 사고형은 부모와의 관계와 무관하였다.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의 핵심이 상황을 판단할 때의 논리성이나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를 개입시키는 정도에 있다고 할 때 사고형을 '냉담한 사람'으로 감정형을 '따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성격유형론이 쉽게 저지될 수 있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일단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일반청소년 감정형들 경우 이들의 비행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는 별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넷째, 판단형과 인식형에 따라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판단-인식형 선호지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판단형이 인식형에 비해 부모에 대해 훨씬 친밀하였고 관계가 호의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인식형이 부적응적이라는 결과와 관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인식형이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학교적응, 진로계획 등 전통적인 학교체계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결과(김혜경, 1996; Keirse & Bates, 1978; Tobacyk et al, 1988)이다. 성인의 경우 인식형보다 판단형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 안에서도 부모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체계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고 판단형의 부모가 인식형의 자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인식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기질에 따른 부모관계

<연구문제 3>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고, 기질 간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비행·일반청소년의 기질 차이검증

		SJ	SP	NF	NT	F	사후 검증
		M(SD)	M(SD)	M(SD)	M(SD)		
		N	N	N	N		
비행 청소년	아버지	3.3 (.7)	3.0 (.7)	3.2 (.7)	3.1 (.9)	8.9***	SJ- SP
	어머니	3.8 (.8)	3.4 (1.0)	3.6 (1.0)	3.6 (.9)	8.4***	SJ- SP
	N	173	323	21	55		
	일반 청소년	아버지	3.0 (.8)	2.8 (.8)	2.8 (.9)	3.0 (.8)	4.3**
	어머니	3.9 (.7)	3.7 (.6)	3.7 (.7)	3.8 (.7)	3.2'	SJ- SP
	N	138	308	82	89		

\*p<.05 \*\*p<.01 \*\*\*p<.001

네 기질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SJ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사이가 좋다고 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SP는 부모와의 관계를 SJ, NF, NT에 비해 친밀하지 않으며 대화도 적게 나눈다고 하여 네 기질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SJ와 SP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기질에 관한 종래의 일반적인 입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SP는 매우 활동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며 자발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성체계에 잘 맞지 않고,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다른 기질에 비해 쉽게 정상패도에서 이탈할 소지가 가장 많다. 이러한 경향들이 주위 환경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두 집단은 비행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기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네 기질의 집단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막론하고 매우 다른 성격의 집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기능에 따른 부모관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성격의 네 가지 기능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다른가라는 <연구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기능 차이검증

		SF	ST	NF	NT	F
		M	M	M	M	
		(SD)	(SD)	(SD)	(SD)	
일반 청소년	N	186	260	82	89	
	아버지	2.9 (.8)	2.9 (.8)	2.8 (.9)	3.0 (.8)	0.8
	어머니	3.9 (.7)	3.8 (.7)	3.7 (.7)	3.8 (.7)	0.6
	N	111	385	21	55	
비행 청소년	아버지	3.2 (.7)	3.0 (.8)	3.2 (.7)	3.1 (.9)	1.0
	어머니	3.5 (1.0)	3.5 (1.0)	3.6 (1.0)	3.6 (.9)	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네 가지 기능(SF, ST, NF, NT)에 따라 부모관계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성격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는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질에 비해 기능은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 네 가지 기능이 MBTI의 실제 적용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행동특성과 관련해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는 변별력이 높지 않은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능의 가치와 실용성 등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

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태도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에너지 방향인 외향-내향형과 실행 양식인 판단-인식형 지표들의 조합으로 네 개의 집단(IJ, IP, EJ, EP)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5>를 알아보았다. 에너지 방향(외향형과 내향형)과 실행양식(판단형과 인식형)은 밖으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지표이고, 본 연구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이들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이 지표들의 조합들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태도에 따라 부모관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한 집단은 IP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EJ이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모두 EJ와 IP에서 비롯되었다.

<표 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태도 차이검증

		IJ	IP	EJ	EP	F	사후검증
		M	M	M	M		
		(SD)	(SD)	(SD)	(SD)		
비행 청소년	N	64	170	125	213		
	아버지	3.2 (.7)	2.9 (.8)	3.4 (.8)	3.1 (.7)	11.8***	IP-EJ,EP,IJ, EJ-EP
	어머니	3.8 (.7)	3.3 (1.0)	3.9 (.9)	3.5 (1.0)	11.8***	IP-IJ,EJ, EJ-EP
	N	105	223	70	219		
일반 청소년	아버지	3.0 (.8)	2.7 (.8)	3.3 (.8)	2.9 (.8)	9.4**	IP-EP,IP IJ-EJ
	어머니	3.7 (.7)	3.7 (.6)	3.9 (.7)	3.8 (.7)	3.2*	IP-EP,IP, IJ-EJ

\*p<.05 \*\*p<.01 \*\*\*p<.001

이것은 외향형보다는 내향형, 판단형보다는 인식형이 부모관계에서 부정적이었다는 선호지표 결과로부터 추측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IP가 가장 취약한 유형이라는 것은 이미 연구된 바 있으나(심혜숙과 김명권, 1998), 본 연구의 결과, 비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에서도 IP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16개 성격유형에 따른 부모관계

<연구문제 6>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성격유형에 따른 부모관계를 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6>은 비행청소년 집단에서는 사례수가 10명 이하인 성격유형들을 제외한 9개 성격유형에 따라 부모관계에 대한 차이를 본 결과이다.

<표 6>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별 부모관계 차이검증

유형 변인	ISTJ (n=46)	ISTP (n=108)	ESTP (n=133)	ESTJ (n=98)	ISFP (n=35)	F
아버지	3.2 (.7)	2.8 (.8)	3.0 (.7)	3.4 (.8)	3.1 (.6)	5.7***
어머니	3.8 (.8)	3.3 (1.0)	3.5 (1.0)	3.8 (.9)	3.1 (1.0)	
유형 변인	ESFP (n=47)	ESFJ (n=18)	INTP (n=19)	ENTP (n=22)		(사후 검증)
아버지	3.2 (.7)	3.5 (.7)	3.1 (.8)	3.2 (.8)		4-2
어머니	3.6 (.9)	3.9 (.9)	3.5 (.9)	3.4 (1.0)		

\*\*\*p<.001

1:ISTJ, 2:ISTP, 3:ESTP, 4:ESTJ, 14:INTP

성격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좋고 부모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유형은 ESTJ이었다. 반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나쁘고, 부모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유형은 ISTP이었다.

<표 7>은 일반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라 부모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7> 일반청소년의 성격유형 별 부모관계 차이검증

유형 변인	ISTJ (n=51)	ISTP (n=77)	ESTP (n=89)	ESTJ (n=43)	ISFJ (n=30)	ISFP (n=76)	ESFP (n=66)	F
아버지	3.0 (.8)	2.6 (.7)	2.8 (.8)	3.3 (.8)	2.8 (.8)	2.8 (.7)	2.9 (.8)	3.0***
어머니	3.9 (.7)	3.6 (.6)	3.7 (.7)	4.0 (.8)	3.9 (.8)	3.8 (.6)	3.8 (.6)	
유형 변인	ESFJ (n=14)	INFP (n=33)	ENFP (n=36)	INTJ (n=16)	INIP (n=37)	ENTP (n=28)		
아버지	3.1 (.6)	2.5 (.8)	2.9 (.9)	3.2 (.9)	2.8 (.8)	3.1 (.8)		
어머니	4.3 (.5)	3.5 (.8)	3.8 (.6)	4.1 (.6)	3.6 (.7)	3.9 (.8)		

\*\*\*p<.001

16개 유형 가운데 사례수 10이하의 성격 유형(INFJ, ENFJ, ENTJ)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일반청소년들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ESTJ, INTJ가 어머니의 경우 ESFJ와 INTJ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INFP와 ISTP가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사후 검증결과에서는 성격유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없었다.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ISTP가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ESTJ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역시 판단형과 인식형의 대립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가족 안에서 성격이 가족관계의 역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격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연구를 등한시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 해결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라 부모관계는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비행

청소년이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이 더 많았다. 비행청소년은 인식형이 더 많을 것이라는 통념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비행여부와 관계없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성격의 선호지표, 기질, 성격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졌다. 외향형, 판단형, 기질에서 SJ, 태도에서 EJ, ESTJ 유형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내향형, 인식형, 기질에서 SP, 태도에서 IP, ISTP 유형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지각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라는 비행여부의 구분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성격에서 선호지표, 기질, 16가지 성격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의 양상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놀라운 것으로 특히 인식형과 판단형 지표에 대해서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행동특성들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났다. 이것은 그만큼 성격 선호지표가 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질이나 태도에서 인식형 지표가 포함될 때마다 부모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나와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을 막론하고 인식형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관심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것은 인식형 청소년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인식형 청소년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양상을 선별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격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보다는 기질에 따른 분류에서 부모와의 관계 차이를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네 기질간의 차이는 비행청소년에서만 뚜렷한(심혜숙과 김명권, 1996; 1998) 것이 아니라 일반청소년에서도 기질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여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비교연구에서 사회환경적 변인 외에 기질이라는 성격유형 변인의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16가지 성격유형 비교에서 사례수가 10이하인 성격유형은 분석에서 제외시킨 점이다. 그 결과 비행청소년 집단에선 모든 NF는 제외되었고 일반청소년 집단에선 INFJ, ENFJ, ENTJ가 제외되어 성격유형들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부모-자녀의 성격 유형을 모두 비교하지 못한 점이다. 다음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격유형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부모관계를 측정하는 척도가 단순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 접수일 : 2001년 11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11일



## 【참 고 문 헌】

- 고숙경(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경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복순(1996). 더불어 사는 세상 속으로 한발 더!!: 징계 청소년 덕성교육 운영에 대한 소고. 21세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부산.
- 김명권(1999).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분석에 따른 인식형 청소년을 위한 MBTI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숙영(1994). 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유형, 법무연구 21집.
- 김정택, 심혜숙(1991). MBTI 안내서. 서울 :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1995). MMTIC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해.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준호(1990). 비행청소년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경(1996). 성격유형과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심웅철(1986). 미국의 청소년 비행 연구동향. 행동과학연구 8권 275-282.
- 심혜숙, 김명권(1997).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유형 학회지 4, 52-78.
- 심혜숙, 김명권(1996).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부모를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학술진흥재단.
- 심혜숙, 김명권(1998). MBTI에 나타난 비행청소년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0(1), 227-250.
- 안창규(1992). 학생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의 측정연구. 성곡논총 23집, 119-170.
- 염태호, 김경규(1991).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 -소년원의 절도범과 폭력범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겨울, 193-222.
- 이인혜(1991).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1), 126-136.
- 이재갑(1993).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원(1991). 청소년 비행의 원인-사회통제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6, 90-112.
- 최여원(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부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MBTI연구소(2000). MBTI전문자격교육 중급과정 자료집. 한국MBTI 연구소.
- Alexander, F. & W. Healy(1935). *Roots of Crime*. New York : Knoof.
- Binder, A(1987). An historical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In H. C. Quay (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Wiley.
- Bandura, A.(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Cattel, R. B., Eber, H. W., & Tatsuika, M. M.(1970). *Hand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Questionnaire(16PF), Champaign III*: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 Cima, R.(1988). *The Acts Model*. P.O. Box 158. Bloomington, CA 92316.
- Dawes H.(1991). Chemical dependency treatment and psychological type,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13-22.
- Disorus, I., Carney, J. V. & B. Bryan(1995). Psychological Type of Education Majors and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32, 36-42.
- Golay, K.(1982). *Learning patterns and temperament styles: A systematic guide to maximizing student Achievement*. Manas Systems.
- Hawkins, C.(1989). In sickness as in health: Type and psychopathology. In *Proceeding of APT VIII*. (42-45). Association of Psychological Type.
- Jung, C, G.(1921). *Psychological Types* (H.G. Baynes, Trans. revised by R. F. C. Hull) *Volume 6 of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lly, E. J.(1991). MBTI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ly disturbed and conduct disordered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13-22.
- Keirsey, D. & Bates, M.(1978). 김정택 등 역 (1993).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Lawrence, G.(1993). *People types & tiger stripes*. CAPT.
- Lippen, B.(1990). Personality types of women in prison.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9, 3-2.
- Myers, I. & McCaulley. M.(1985).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198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Nye, F. 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Behavior*. New York : Pergamon.
- Tobacyk, J., Wells, D. & Springer, T.(1988). Jungian type and self-concept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t high risk for dropout,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6, 47-53.
- Uslianer, M.(1990). *The combined use of MBTI*. Ball State University.